

또한, 인형들학교 제 1회 졸업식을 맞이하여, <사랑 노동자들의 뜨거운 의지로 피어난 영동한 이 자리에  
힘을 내서 타구진 강도 내뺌들과 작부모임들,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이 주선하신 학생 여러분들의 졸업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 1회 졸업식이라는 가슴 벅찬 4 주전에 축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보람으로 생략하여 여러분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취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인형들학교 제 1회 졸업생들이 신학교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숙하게  
졸업의 문을 내서는 그들의 이 거기에 3년 동안 그들이 겪어낸 고통에 대한 격려와 밝은 미래를 개척  
해 갈 우리의 기대 키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동행으로 주축임을 빌려드립니다.

나는 먼저 취업, 생활비를 개척하듯 노동자의 힘으로 성실한 이 학교의 취지를 물려받은 전통으로 대우고,  
자부심 가득한 마음으로 이 학교를 취업 졸업하는 여러분을 가슴 부딪히게 치켜올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형들학교의 임하는 노동자들의 뼈와 살이 결집되어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들이 모여 꿈틀거리는  
생명과 정열의 힘으로 오늘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제 1회 인형 졸업생 여러분은 절박한  
길을 지나 열혈투쟁을 이룩하고, 학교의 뜻에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는 자의 발음을 이 학교의 전통으로 가꾸는 데 헌신하여 여러분의 역할이 신념을 보여주시길  
여러분이 이루어낸 의미 미적인 결실과 제는 신실 학교의 과정과 의지를 결사적으로 지켜내시기에  
힘을 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수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차근차근 보여준 기록 없이  
유리한 선수는 학교의 준비들의 지침이 타미 역시요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자의

결연한 귀결이기에, 인형과 여백은 심보화 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 제 1회 졸업생을 배울라는 뜻과 이 자리에서 우리 학교가 지역 사회에서  
교육비 미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원 체력에 열정성, 학교 입구의 평온과 치면 수렴, 부대시설의 질적인 향상등을 통해 이것은  
집중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실험 장면에 임각된  
의력을 증진시켜 줄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우리는 이미 3년 동안의 학교 생활과 선생님들의 가르침, 교훈을 통해 성실, 봉사,  
도령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우리는 이미 3년 동안의 학교 생활과 선생님들의 가르침, 교훈을 통해 성실, 봉사,  
도령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여제이다. 두가지 정도의 상부의 말을 참사기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필수분리를 의미합니다만 우리는 매우 쉽게 간파!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무관심과 자기주석 거지로 아랑곳없는, 악을 보충해 주는  
위장막 구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항상 인간으로서 본능적으로 그런 이념에도 하고  
거짓 웃음 속에서 흐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관념력과 추진력은 방치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히 흐르는 사회의 역사의 물결 속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만큼의 무게가 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핑계해야 할 무게만 양념의 무게가 있지만, 우리는 가끔  
내가 해야 할 무게로든지 내가 해야 할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하게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므로 자기가 들어야 할 만큼의 무게를 들 수 있는, 쓰는 사람이 타라는  
것입니다.

또, 나의 양부는 자기는 주체적으로 정감하는 작업을 게으리까지 말하는 것뿐입니다.  
정지해 보면, 자기의 몫은 잃어버리고 갖지 못해 인연히 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전혀 작은 양부도 하지 않는 험악미정신 사슴에 대한 견해의 정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못지 못한  
저속함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만은 같은 시 부는 자의 믿음 배우고 허전한 삶의 기운 느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졸담과 동시에 시 부는 살림을 해야 할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화해하기도 말고, 돌아 가지도  
않고, 쓰러 들 수 있는 만큼의 무게를 수태적으로 들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노동자들이 바뀌어,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 놓은 인간의 부는 더욱 튼튼하게 변해갈  
것이며, 보다 넓게 퍼져갈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졸업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회와 타인에 대한 투철한 의의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체적인 청년학도도 성숙함을  
바랍니다. 끝으로 인공과 등락교가 시 부는 체에 대한 견해가 전심으로 부어낼 수 있도록 학생들  
은 이리 가르쳐요. 광선님들과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